

## 애착의 안정도와 유아의 자아지각\*

유효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Bowlby는 애착대상의 표상이 유아의 자아의 표상에 중요하다고 주장을 한다. 본연구는 이러한 Bowlby의 주장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37명의 4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유아의 애착은 Waters의 애착행동 Q-set을 이용하여 평가되었으며, 유아의 자아지각은 Harter의 유아용 자아지각검사(Harter's Scale of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Acceptance for young Children)를 이용하였다. 결과를 보면 안전애착집단과 불안애착집단간의 유아의 자아지각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사에 의한 평가에서는 또래수용에 있어 두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아에 대한 교사의 평가와 유아의 자아평가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Bowlby의 주장을 부정한 것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유아가 자아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나 보다 보완된 자아지각검사를 이용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문제의 제기

이제까지의 애착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영아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영아의 애착행동을 지표로 삼고 있다. 이는 애착연구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Ainsworth(1983)의 애착측정절차인 낯선상황(strange situation)이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제한된 연령의 아동만이 대상이 될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Main과 Cassidy(1985, 1986)가 6세아동을 대상으로 애착과 사회성 발달과의 연구를 시작함으로서 영아가 아니

라 유아를 대상으로 표상수준에서의 유아의 애착과 발달과의 관계를 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애착대상의 표상에 관하여 언급한 사람은 Bowlby(1969, 1973, 1980)로 그는 애착대상의 표상을 “표상적 모델(representational model)” 또는 “실행모델(working model)”이라 부르면서, 아동은 애착대상인 엄마를 내적 실행모델로 삼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석하고 예측하는데 이 모델을 사용한다고 본다. Bowlby에 의하면 애착대상

\* 본 연구는 한국방송대학 94년도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 본 연구에 참여하였던 모든 아동과 교사들에게 감사드린다.

의 표상은 아동초기에 형성되는데 이 내적 실행모델의 본질은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애착대상과 갖는 반복적 경험에 의해서 다르게 형성된다. 다시 말하면 표상모델의 본질과 절은 어느정도는 부모가 아동이 보내는 신호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적절하게 응했느냐, 아동이 보호와 안심이 필요했을 때 부모의 위치가 쉽게 주어졌느냐, 아동을 애정적으로 수용하였으며 아동기 주위환경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촉진하였는가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게 된다.

실행모델로서의 애착대상의 작용은 Ainsworth(1983)의 “낯선상황(strange situation)”에서 전형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Ainsworth는 낯선 상황에서 유아가 엄마와 떨어져 있다가 재결합을 할 때 부모를 반기며 적극적으로 접근, 접촉추구와 같은 행동을 하느냐 또는 부모를 회피하거나 저항을 하느냐에 따라 유아의 애착을 안정애착과 불안애착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애착행동은 유아의 내적 실행모델이 반영된 것이라 제안하였으며 실제로 그녀의 주장은 그의 동료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에 의해 관찰되었다. 즉 안정애착을 형성한 영아가 낯선상황에서 어머니와의 재결합시 주저함이 없이 접근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자신에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며 항상 자신이 필요로 할 때 주위에 있는 실행모델로서 엄마를 보기 때문이라는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엄마가 도움을 주리라 기대하여 낯선상황에서 혼자 있어도 별로 올지 않게 된다(Lamb & Bernstein, 1988).

Bowlby의 내적 실행모델의 개념은 Craik(1943)의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그는 현실과 개인의 내적세계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내적 실행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한편 Craik의 영향을 받은 Johnson-Laird(1983)은 정신적 모델이 유기체에게 통찰력이 있고 예측력이 있는 행동을 하게 하므로서 생존에 장점을 부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Johnson-Laird에

의하면 내적, 정신적 모델의 근본적 본질은 적응행동을 하게하는 기능적 역할을 한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Waters, Wippman, & Sroufe, 1971; Sroufe & Waters, 1977; Jacobson & Wille, 1986; Pastor, 1981; Troy & Sroufe, 1987; 유효순, 1992)에서 유아-엄마의 애착관계의 질이 유아의 사회성 능력과 관련이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Bowlby(1973, 1980)는 또 애착대상의 표상모델은 아동이 이 세상의 본질과 특성을 이해하고 이 세상에서 기대되는 행동을 발달시켜 사회성발달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아동이 자아에 대해 형성하는 내적 표상과 밀접히 관련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신에 대해 학습할 수 있게하는 수단이 적은 유아에게는 애착대상과의 경험이 자신에 대한 중요한 정보 제공요소로써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Sroufe와 Fleeson(1986)도 Bowlby의 아이디어를 보다 정교화하여 아동의 자아에 대한 초기학습은 주로 대인관계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면서 애착대상의 여러 특성이 아동의 학습과정을 통해 아동의 자아에 통합된다고 보았다.

애착대상에 대한 실행모델과 자아에 대한 내적표상모델의 관계도 유아-엄마의 관계가 어떠하나에 따라 다르게 된다(Bowlby, 1973). 부모가 아동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고, 애정적으로 수용해 주며, 아동이 필요한 경우 항상 주변에 있어준 경우 아동은 안정애착을 형성할 뿐 아니라 자신이 받은 대우를 토대로 자신을 가치있는 존재로 보게 된다. 이러한 자아표상은 자신을 유능한, 능력있는 존재로 보게하고 주변사람에 의해 자신이 수용된다 고 지각하게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유아의 애착대상이 어떠한 유형의 실행모델이 되느냐, 다시 말하면 애착의 질이 어떠하나에 따라 유아의 자아지각에 차이가 있으리라 예상할 수 있으며 실제로 몇몇 연구들(Cassidy, 1988; Kroger, 1985)에서 입증이 되고 있다. Cassidy(1988)는 6세아동을 대상으로 애착의 실행모델과 유아의 자아의 내적 표상 즉 자

아지각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는데 결과를 보면 안정에착집단의 유아들이 불안에착집단의 유아들보다 긍정적으로 자아를 평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roger(1985)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안정에착집단이 자아정체감 형성에 있어 성취적이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Quintana 와 Lapsley(1987)도 부모와의 애착이 정체감 발달과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유아가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할 뿐 아니라 또래와의 적응도 잘하게 하며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oopersmith, 1967). 따라서 유아의 애착의 질에 따른 자아지각과의 관계에 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애착과 자아지각과의 연구는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긍정적 자아지각을 넘어서 자아정체감형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으며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별로 없어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뿐만아니라 이제까지의 애착연구에서는 Ainsworth(1983)의 낮선상황절차를 이용하여 애착을 측정하고 있는데 이 절차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세로운 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요구된다. 첫째, 낮선상황 절차는 영아를 대상으로 애착을 측정하기위여 개발된 것이므로 유아의 애착과 자아지각과의 관계를 살피는데는 애착의 안정성 여부의 문제가 있다(Cassidy, 1988). 둘째, 낮선상황 절차는 자연스런 상황이 아니라 인위적인 실험상황이다(Hinde, 1983). 따라서 낮선상황에서의 어머니의 행동(예: 낮선 곳에서 아기를 혼자 두고 살짝 나감)이 일상적 행동이 아니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측정된 영아의 행동을 토대로 한 애착을 일반화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낮선상황에서의 아동의 행동은 낮선 것에 대한 아동자신의 기질적 성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Kagan, 1982; Thompson, Connell, Bridges, 1988) 낮선상황에서의 영아행동에 기초한 실험결과로 전정한 애착관계를 측정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위와같은 여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 유아의 애착연구에 관심을 고조시키는에 크게 기여한 것이 Waters 와 Deane(1985)의 애착 Q-set이다. 이 애착 Q-set는 Bowlby의 애착이론을 토대로 한 것으로 유아의 내적 애착실행모델을 행동으로 기술한 9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항을 유아의 행동과 유사한 정도에 따라 1점에서 9점으로 Q-sort방법에 의해 분류하고, 분류된 점수와 전문가가 제시한 규준점수 간의 상관을 통해 아동의 애착 안정성, 의존성, 사회성, 사회적 바람직성 등의 애착구성을 알아보는 방법이다. 각 문항을 유아의 일상생활에서의 행동기술을 토대로 분류하는 것이므로 자연스런 상황에서 유아의 행동을 토대로 애착을 알아볼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 Q-sort를 통해 측정된 애착의 안정성은 Ainsworth의 낮선상황에서 측정된 애착의 안정성과 상관이 있을 뿐만아니라(Vaughn & Waters, 1990), 유아의 애착과 제 발달과의 관계를 밝히는데 유용함이 입증되고 있다(Cohn 1990; 이정희, 1994; Park & Waters, 1989).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애착 Q-set를 이용하여 유아의 애착의 안정도에 따라 유아의 자아지각에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교사의 유아에 대한 평가도 애착의 안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유아의 자아에 대한 판단이 불명확하며 실제 자아와 이상 자아에 차이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어(Stipek, 1981) 유아의 자아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객관적인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애착 안정도에 따라 유아의 자아지각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애착 안정도에 따라 교사의 유아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 방법 및 절차

피험자.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의 한 유아교육기

관에 다니는 유아와 어머니 37쌍이었다. 유아는 48개월에서 62개월사이의 남아 26명과 여아 11명의 아동들로 이들의 평균 연령은 표1과 같이 54개월이었다.

표 1. 연구대상

	명수	평균연령개월
남	26	54.19
여	11	53.91
합	37	54.05

**애착의 안정도 측정.** 유아들의 애착의 안정도는 Waters 와 Deane(1985)이 개발한 Q-set 개정판 3(Revision 3.0: Waters, 1987)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개정판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이정희(1993), 나종해(1993) 및 이영환(1994)에 의해 사용되었던 것으로 번역에 있어 원안에 충실하되 우리나라 설정에 맞게 표현을 다소 수정하기도 하였다. Q-set는 아동의 행동을 기술한 90개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어 어머니들이 10개씩 9개의 집단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다.

애착의 측정에 있어 10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두번의 예비조사를 하였다. 첫번째에서는 어머니들에게 어떻게 카드를 분류하는 가를 설명해주고 그 자리에서 카드를 분류하도록 하였다. 또 한번은 열흘뒤 어머니에게 카드를 주어 일주일동안 가정에서 아동을 관찰하여 카드를 분류하도록 하였다. 그결과 어머니들의 카드 분류신뢰도가 최저 .60, 최고 .87로써 평균 .74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들이 카드를 분류하는데 있어 반드시 일주일간의 관찰시간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점과 애착안정도 측정의 신뢰도의 산출에 반드시 관찰자가 개입될 필요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이영환(1994)이 지적한바와 같이 Q-set의 항목들중 관찰자가 한 두 시간의 짧은 시간 동안에 쉽게 관찰될 수 없는 행동항목들에 대한 관찰자와 어머니의 관찰의 신뢰도가 저조하다는 점은 애착측정의 신뢰도측정을 위해 관찰자 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또한 Warters와

Deane(1985)도 어머니는 관찰자보다 유아의 행동에 더 잘 접근할 수 있으며 오랜 기간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 어머니에게 무엇을 관찰할 것인지, 관찰한 것을 어떻게 보고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관찰자보다 어머니가 유아의 애착행동에 더 좋은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을 10명씩 소집단으로 어린이집에 오도록 하여 연구자가 Q-set의 카드를 분류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해가며 어머니들이 각 카드를 주의깊게 읽고 남 다음 신중히 분류를 하도록 하였다. 부모들이 Q-set를 완전히 분류하는 데는 약 60분이 걸렸다.

이중 10명의 어머니들에게 일주일후 다시 카드를 보내 가정에서 카드를 분류하도록 하여 신뢰도를 알아보니 상관계수가 평균 .76이었다.

**유아의 자아지각 검사.** 인간의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에서 오랜 영역중의 하나이나 최근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고 있다(Harter, 1983). 관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동의 자아구조에 대한 연구는 적다. 이는 어린 아동의 자아에 대한 판단이 불명확하거나 비현실적이어서 현실과 자신의 바램을 혼돈하며, 실제 자아와 이상자아상에 차이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으며(Stipek, 1981).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사회적 비교도 9세정도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Ruble, 1983) 연구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염두에 두면서 Harter(1984)는 4-7세 아동용 자아지각검사를 개발하였는데 이것은 그의 8-18세용 자아개념검사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수정을 한 것이었다.

첫째, 4-7세용은 질문지가 아니라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어린 아동들의 흥미를 더 유발하여 주의집중을 잘하게 할 뿐 아니라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척도에서는 숫자를 사용하나

여기에서는 동그라미의 크기로 척도의 값을 표시한다. 즉 동그라미의 크기가 클수록 정적 또는 부적 값이 커지게 된다.

세째, 자아개념검사 하위영역을 크게 지각된 능력영역과 지각된 수용영역으로 나누었다. 전자에는 인지능력과 신체능력이 포함되고 후자에는 또래수용과 모성수용이 들어가 있다.

이러한 Harter의 아동용 자아지각검사중 4-5세용을 번안하여 30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Harter의 검사는 각 문항마다 긍정적인 그림과 부정적 그림의 두개씩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 아동으로 하여금 먼저 자신이 긍정적 그림의 아동과 유사한지, 부정적 그림의 아동과 유사한지를 선택하게 한 뒤, 각 차원에서 또 다시 더 그러한지, 또는 다소 그러한지의 척도를 나타내는 두개의 크고 작은 동그라미 중 하나를 지적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퍼즐을 잘맞추는지 못맞추는지 먼저 긍정, 또는 부정적 그림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 뒤 잘 맞춘다고 한 경우 아주 잘 맞추는지 조금 잘 맞추는지를 각 그림 밑에 있는 크고 작은 동그라미중 하나를 지적하게 하는 것이다. 예비실험 결과 대다수의 유아는 우선 긍정적 방향의 그림을 선정하였으며, 또한 긍정적 그림중에서도 아주 잘한다는 척도의 큰 동그라미를 지적하여 각 하위척도의 유아의 점수가 4점 만점에서 평균 3.78로 나타나 아동들의 대다수가 긍정적 방향으로만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부정적 차원의 그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둘째, 6명의 어린이집 교사와 함께 Harter의 검사문항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다소 지적되어 수정을 하였다(예: '친구의 집에서 잠을 자면서 지낸다.'는 '자기집에 같이 놀러가자고 하는 친구가 얼마나 되는가'로 바꾸었다).

이렇게 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유아용 자아지각검사는 Harter의 지각된 자아검사와 같이 지각

된 자아능력검사와 자아수용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는 인지영역 및 신체영역의 두 하위영역으로 나뉘어지고 후자는 또래수용과 모성수용의 두 하위영역으로 나뉘어졌다. 이 네 하위영역에 해당되는 문항은 각각 6개씩이었다. 다만 차이점은 수정된 문항에 맞추어 그림도 수정하였으며 긍정, 부정의 두그림을 하나로 하여 그림의 인물이 중립의 표정을 짓게 하였다. 또한 척도도 4점척으로 동그라미를 점점 크게 하여 표시하였다. 이렇게 수정보완된 자아지각검사를 15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해본 결과 4점척의 동그라미의 방향이 항상 오른쪽으로 점점커지는 것보다는 무선적으로 좌측으로 또는 우측으로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검사는 각 문항의 그림밑에 있는 동그라미의 크기의 변화가 좌측, 우측으로 교대로 나타나게 하였다. 검사의 실시시간은 각 아동당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렸다.

인지영역의 문항중 하나를 예를 들어 검사실시과정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을 유아의 앞에 정면이 되게 놓고서 "이아이가 퍼즐을 맞추려고 하고 있구나. 00이는 새로운 퍼즐을 (각 동그라미를 하나씩 지적하면서)이만큼 잘 맞출 수 있니, 이만큼 잘 맞출 수 있니, 이만큼 잘 맞출 수 있니, 이만큼 잘 맞출 수 있니."

교사의 유아에 대한 평가, 애착의 안정도에 따라 교사의 유아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있으며, 또한 유아의 자아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객관적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사로 하여금 유아에 대해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사용된 검사는 Harter의 유아용 자아지각검사중 모성수용에 관한 문항을 제외한 인지, 신체 및 또래수용에 관한 질문을 교사에 맞게 바꾼 것이었다. 교사는 각 문항을 읽고 각각의 아동에 대해 4점척으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자료분석. 애착의 안정도는 어머니의 Q-sort에 따라 9집단으로 나뉘어진 카드에 1-9점의 점수가

부여되었으며 이점수와 각 카드의 규준점수와의 상관계수로 얻었다. Park & Waters(1989)의 연구에서처럼 대상아동중 애착의 안정도가 상위 65%에 해당되는 집단은 안정애착집단으로, 하위 35%에 해당되는 집단을 불안애착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안정, 불안애착집단을 상기와 같이 나눈 것은 일반적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애착집단을 분류하였을 경우 평균 약 65%가 안정애착집단에, 나머지 약 35%가 불안애착집단에 속하기 때문이다(예: 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유효순, 1984).

이 두 집단간의 유아의 자아지각검사와 교사의 유아에 대한 평가의 차이는 T-test로 알아보았다. 또한 유아의 자아지각과 교사의 유아에 대한 평정과의 차이가 있는 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하였다.

## 결 과

안정, 불안애착집단간의 유아의 자아지각의 차이  
안정, 불안애착집단간의 유아의 인지, 신체, 또래수용 및 모성수용에 대한 자아지각의 차이를 알아보니 표 2에서와 같이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 안정, 불안애착집단간의 유아의 자아지각의 차이

검사내용	집단	N	M	SD	t
인지	불안	12	3.42	0.38	0.6402
	안정	25	3.30	0.56	
신체	불안	12	3.18	0.45	-0.1252
	안정	25	3.21	0.61	
또래수용	불안	12	3.36	0.56	-0.1601
	안정	25	3.39	0.56	
모성수용	불안	12	3.15	0.66	-0.9331
	안정	25	3.34	0.56	

안정, 불안애착집단간의 교사의 평정의 차이  
안정, 불안애착집단간의 교사의 유아에 대한 인지, 신체 및 또래수용에 대한 평정에 차이에 대한 것을 알아본 결과가 표 3이다. 이를 보면 유아의 인지능력 및 신체능력에 대한 교사의 평정에는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또래수용은 안정애착집단의 유아들이 불안애착집단의 유아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안정, 불안애착집단간의 교사의 평정의 차이

교사의 평정내용	집단	N	M	SD	t
인지	불안	12	2.71	0.98	-0.4491
	안정	25	2.83	0.69	
신체	불안	12	2.81	0.47	-1.0884
	안정	25	2.97	0.42	
또래수용	불안	12	2.23	0.40	-2.3839*
	안정	25	2.65	0.54	

\* p < .05

유아에 대한 유아자신과 교사의 평정간의 차이  
안전, 불안애착 두집단에서 유아자신의 자아지각 평정과 교사의 유아에 대한 평정간의 차이가 있는 가를 알아기 위하여 Paired-T test를 한 결과가 표 4이다. 표를 보면 안정, 불안애착집단 모두 인지와 또래수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표 4. 유아와 교사의 평정간의 차이

애착집단	평정내용	N	M	SD	t
불안	인지	12	0.71	0.26	2.7482*
	신체	12	0.38	0.21	1.7836
	또래수용	12	1.13	0.20	5.5522***
안정	인지	25	0.47	0.17	2.8002**
	신체	25	0.23	0.16	1.4526
	또래수용	25	0.74	0.17	4.3269***

\* p < .05, \*\* p < .01, \*\*\* p < .001

## 논 의

본 연구는 유아원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의 애착의 안정도와 자아지각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것으로 결과를 보면 안정, 불안애착집단 유아간의 자신의 인지능력, 신체능력, 또래수용 및 모성수용에 대한 자아지각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착대상에 대한 실행모델과 자아에 대한 내적 표상모델이 관련된다고 보는 Bowlby(1973)의 주장은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애착대상과 안정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자신이 받은 대우를 토대로 자신을 가치있는 존재로 보게되며, 주위사람으로부터 수용된다고 지각하게 되리라는 가정을 지지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위와같은 가정을 완전히 부정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연구결과를 자세히 보면 안정애착집단의 유아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는 않으나 불안애착집단보다 신체능력, 또래수용 및 모성수용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는 30명을 대상으로 했던 예비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였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오지 않은 것은 안정애착집단의 유아나 불안애착집단의 유아 모두가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Cassidy(1988)의 연구에서도 보면 불안애착집단의 유아들중 특히 회피집단의 유아들은 자신을 모든 측면에서 완벽한 존재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유아에 대한 교사의 평정결과를 비교해 보면 또래수용에 있어 안정, 불안애착 두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안정애착집단의 유아들이 불안애착집단의 유아보다 또래에 의해 더 수용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객관적으로 볼때 안정애착집단의 유아들이 적어도 또래수용에 있어서는 불안애착집단의 유아보다 더 수용되고 있으나 불안애착집단의 유아들도 실제로는 달리 자신들이 또래에 의해 수용되고 있다고 지각하게 때문에 자아지각평가에 있어 두 애

착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는 4세정도의 유아의 자아평정의 정확성에 질문을 갖게 한다. 이는 유아들이 내적인, 보이지 않는 요소를 평가해야 하는 어려움과 또한 유아의 보고의 타당성과 관련된 문제들로 여러 연구들(Harter, 1983, Wylie, 1979)에서 이미 지적되고 있는 바이다. 본 연구에서도 보면 Harter의 자아지각검사를 그대로 적용하여 보았던 예비연구에서는 대다수의 유아들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를 꺼려 긍정, 부정의 두 그림중 긍정적 그림을 선택하였으며, 평정에 있어서도 천정효과(ceiling effect)가 나타났다. 문항을 모두 긍정적으로 수정한 본 실험에서도 4점 만점에서 평균 3.3이 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유아의 평정과 교사의 평정과의 차이를 보면 인지 및 또래수용영역에서 유아들이 교사보다 유의하게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신체영역에서도 유의하지는 않으나 교사보다 높게 평정하고 있다. 이는 Stipek(1981)이 지적한 바와 같이 유아는 자아지각에 대한 판단이 불명확하거나 비현실적이어서 현실과 자신의 바램을 혼돈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할 때 앞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 더 필요한것 같다. 만약 4세의 유아들이 자아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없다고 본다면 종단적 연구, 또는 횡단적 연구를 하여 Bowlby의 주장을 재검토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예를 들어 4세, 5세, 6세, 7세, 또는 8세 등 자신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연령의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위와 같은 연구를 해봄으로써 본 연구의 가설을 다시 한 번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른 하나는 유아들의 자아지각검사의 문제점을 보다 보완한 검사를 이용한 연구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는 대다수의 유아들이 자신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고 평정에 있어 천정효

과가 나타나는 등의 문제가 있어 Harter의 유아용 자아지각검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나 검사문항이 문화의 차이로 인해 우리나라 유아로 하여금 정확히 자아평정을 하지 못하게 하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Harter의 유아용 자아지각 검사가 4세유아로 하여금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게 한다면 다른 종류(예를 들면 퍼펫을 이용한 면담)의 검사의 이용도 고려해 볼 만하다.

## 참 고 문 헌

나종혜(1993). 어머니와 타아교사에 대한 유아의 애착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유효순(1992). 유아의 애착과 사회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유효순(1984). 애착유형과 탐색행동과의 관계. 박사학위청구논문.

이영환(1994). 3세 유아와 아버지간의 애착 안정성과 의존성: Q-Sort 가정관찰.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 Vol.7, No.2, 108-118.

이정희(1993). 취업모와 자녀간 애착 안정성과 관련변인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Ainsworth, M. D. (1983). Infant attachment and maternal care: Some implications for psychoanalytic concepts of development. *Dialogue*, 6, 41-49.

Ainsworth, M. D.,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2. Separation*. New York: Basic.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Cassidy, J. (1986). The ability to negotiate the environment: An aspect of infant competence as related to quality of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7, 331-337.

Cassidy, J. (1988). Child-mother attachment and the self in six-year-olds. *Child Development*, 59, 121-134.

Cassidy, J., & Main, M. (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infant-parent attachment and the ability to tolerate brief separation at six years. In R.Tyson & E. Galenson (Eds.), *Frontiers of infant psychiatry* (Vol.2, pp.132-136). New York: Basic.

Cohn, D. A.(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year-olds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1, 152-162.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Erickson, M. F., Sroufe, L.A., & Egeland, B.(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attachment and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 in high-risk sample.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pp.147-166).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209).

Harter, S.(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In E. M. Hetherington (Ed.), P. H. Mussen (Se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pp.275-385). New York: Wiley.

Harter, S., & Pike, R.(1984). The Pictorial scale of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acceptance for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1969-1982.*

- Hinde, R. A.(1983). Ethology and Child development. In P.H.Mussen, M.M. Haith & J. J. Campo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2. Infancy and developmental psychology* (4th ed, pp.27-94). New York: Wiley.
- Kagan, J.(1982). *Psychological research on the human infant: An evaluative summary*. New York: W.T.Grant.
- Kroger, J. (1985). Separation-individuation and ego identity status in New Zealand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 133-147.
- Main, M., & Cassidy, J. (1985). Assessments of child-parent attachment at six years of age. Unpublished scoring manual.
- Main, M., & Cassidy, J. (1986). Categories of response to reunion with parent at age six: Predictable from infant attachment classification and stable over a one-month period.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Park, K. A., & Waters, E. (1989). Security of attachment and preschool friendships. *Child Development, 60*, 1076-1081.
- Pastor, D. (1981). The quality of mother-infant attachment and its relationship to toddlers' initial sociability with peers. *Debelopmental Psychology, 17*, 326-335.
- Pease, D., Clark, S. G., & Crase, S.J. (1979). Iowa State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Inc.
- Quintana, S. M., & Lapsley, D.K. (1987). Adolescent autonomy and ego identity: A structural equations approach to the continuity of adapta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 393-410.
- Ruble, D. N. (1983).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and their role in achievement-related self-socialization. In E. T. Higgins, D. N. Ruble, & W.W. Hartup(Eds.). *Social cognition and social develop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roufe, L. A., & Fleeson, J. (1986). Attachment and the construction of relationships. In W. Hartup & Z.Rubin(Eds.), *Relationships and development* (pp.51-7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roufe, L. A., & Waters, E., (1977). Attachment as an organizational construct. *Child Development, 48*, 1184-1199.
- Stipek, D. J. (1981).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own and their classmates'abil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3*, 404-410.
- Thompson, R. A., Connell, J. P., & Bridges, L. J. (1988). Temperament, emotion, and social interactive behavior in the Strange Situation: A component process analysis of attachment system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59*, 1102-1110.
- Troy, M., & Sroufe, L. A. (1987). Victimization among preschoolers: Role of attachment relationship history.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6*, 166-172.
- Waters, E., & Deane, K. E. (1985). Defining and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Q-methodology and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pp.41-65).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209).

Waters, E., Wippman, J., & Sroufe, L. A. (1979).  
Attachment, positive affect, and competence  
in the peer group: Two studies in construct

validation. *Child development*, 50, 821-829.

Wylie, R. (1979). *Theory and research on  
selected topics: The self concept*.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韓國心理學會誌：發達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 Developmental*

1996. Vol. 9, No. 1, 110-120.

## **Child-mother attachment & the perceived self in four-year-olds**

Hyo-Soon You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According to Bowlby, representation of attachment figures are important in the child's representation of self. In this study, the child's representation of self was examined in connection with child-mother attachment in a sample of 37, middle-class 4-year-olds. The security of child-mother attachment was assessed by using the Waters Attachment Behavior Q-set. Child's self perception was measured by Harter's Pictorial Scale of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Acceptance for Young Children. Even though significant connection between attachment and the self was not found, it is hard to say that there is no relation between them. Because the secure attached child evaluated self more positively than the insecure attached child. Also, teachers evaluated that the secure attached children are significantly more accepted by peers than the insecure attached children. Further study is recommended.